

# 간호대학생 고학년의 자아탄력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

채명옥  
청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Ego Resili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Job Seeking Stress of Senior Nursing Students

Myung-Ock Chae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eongju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고학년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수행되었다. 간호대학생 3, 4학년 175명을 대상으로 자가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은 대학생활 만족도에 따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건강상태,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에 대한 만족도, 학업성적에 따라, 취업스트레스는 학년,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에 대한 만족도, 학업성적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취업스트레스의 영향요인은 학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대학생활 만족도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13.5%였다. 그러므로 학년, 대학생활 만족도를 고려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키는 융복합적인 중재를 통해 간호대학생 고학년의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자아탄력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 간호대학생, 고학년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among ego resili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job-seeking stress of senior nursing students. Data was collected through self-reporting questionnaire to 175 nursing students 3rd and 4th grade.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vealed grad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atisfaction on university life to be significant predictors of job-seeking stress. These variables accounted for 13.5% of job-seeking str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job-seeking stress of senior nursing students through multidisciplinary intervention which strengthen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onsidering grade, satisfaction on university life.

**Key Words** : Ego resili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b-seeking stress, Nursing student, Senior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발달단계 상 성인기 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은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 직업을 선택하여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다[1]. 이러한 준비과정에서

주로 학업문제와 장래문제가 대학생의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2]. 스트레스는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했을 때 느끼는 심리적·신체적 긴장 상태로, 이러한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심장병, 고혈압 등의 신체적 질환과 불면증, 우울증 등의 심리적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3].

\*Corresponding Author : Myung-Ock Chae(7702cmo@cju.ac.kr)

Received February 7, 2019  
Accepted April 20, 2019

Revised March 13, 2019  
Published April 28, 2019

2019년 1월 10일 간호신문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2018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에서 2016~2018년 3년 연속 고등학생 희망직업 2위로 간호사가 차지했는데[4], 이는 간호사의 취업률이 다른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2018년 12월에 발표된 ‘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결과 내용에 따르면, 전체 취업률이 66.2%인 것에 비해 간호 분야는 86.6%로 약 20%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

그러나 이러한 높은 취업률에도 불구하고 간호·보건 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스트레스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이 보건계열 대학생보다 취업스트레스 점수가 높았고, 종합병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의원급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보다 취업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6] 간호대학생들의 취업 희망 기관의 규모 및 수준에 따라 취업스트레스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스트레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는 학업성적, 학교생활 만족도[7]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간호전문직관이 4학년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주요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8], 취업불안스트레스는 진로준비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7].

한편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결과, 취업 준비 관련 스트레스원은 취업준비 부족, 부담감이나 불확실성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신체적으로는 섭식, 수면, 순환기 장애를 유발하고, 정서적으로는 불안, 분노, 우울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9]. 특히 대학교 1, 2학년보다 3, 4학년의 취업스트레스가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10] 취업에 집중하는 간호대학생 고학년의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자아탄력성은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개인의 경향으로, 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지각 및 대처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한 결과, 자아탄력성은 대학생이 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11]. 또한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12],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은 학업스트레스와 불안 사이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완충하는 것으로 나타나[13] 이를 중합

해 볼 때, 자아탄력성은 취업스트레스와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대학생들의 생활 대부분은 진로 및 취업 준비 활동에 매우 치중해 있고, 이러한 진로준비행동은 대학생들에게 고민과 스트레스의 형태로 영향을 주고 있다[10]. Bandura의 자기효능감을 이론을 진로 및 직업의 영역에 적용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여러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신념 또는 유능감으로 정의되는데[14],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하였으므로[15],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신체증상 및 건강지각[16], 우울감 및 자살생각[17], 스트레스 대처방식[18], 셀프리더십[19], 자아탄력성[20] 등의 신체·정신적 요인이나 진로성숙도와 취업불안[21], 취업준비행동[18] 등의 취업 요인과 같은 취업스트레스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자아탄력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라는 긍정적 요인을 모두 포함한 취업스트레스 관련 융복합적 영향요인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 고학년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탄력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관계 규명하는 것은 연구로서 의미가 있고, 연구 결과에 따라 간호대학생 고학년의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긍정적 요인인 자아탄력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고학년의 자아탄력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를 확인하고,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긍정적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 고학년의 취업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관리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 1.2 연구목적

- 1) 간호대학생 고학년의 자아탄력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 고학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 고학년의 자아탄력성, 진로결정자기효

능감, 취업스트레스의 관계를 파악한다.

- 4) 간호대학생 고학년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고학년의 자아탄력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C시에 소재하는 종합대학 간호학과 재학생 중 고학년에 해당하는 3, 4학년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 하였다. G\*power 프로그램[22]을 활용해 표본 수를 산정한 결과, 선형 다중 회귀분석을 기준으로 검정력 .95,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로 하고 예측변수를 5개로 하면 138 명이고, 탈락률 25%를 고려해 177부를 배부한 후 최종 자료 분석에 175부가 사용되었으므로 표본 수가 충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2.3 연구도구

#### 2.3.1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본 연구에서는 Block과 Kremen[23]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Ego Resilience scale, ER)를 Yoo와 Shim[24]이 번안하고 수정·보완한 14문항을 사용 하였다. 본 도구는 대인관계 3문항, 호기심 5문항, 감정 통제 2문항, 활력성 2문항, 낙관성 2문항의 5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Yoo와 Shim[2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67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78이었다.

#### 2.3.2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Taylor와 Betz[14]가 개발하고 단축형으로 수정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Short-Form: CDMSES-SF)를 Lee와 Lee[25]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목표선택 11문

항, 직업정보 6문항, 문제해결 3문항, 미래계획 5문항,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와 Lee[25]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는 .92 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1이었다.

#### 2.3.3 취업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는 코넬대학의 스트레스 측정법(Connell Medical Index: CMI)을 토대로 Hwang [26]이 개발한 취업스트레스 척도를 Kang[27]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 하였다. 본 도구는 성격 스트레스 6문항, 가족환경 스트레스 5문항, 학업 스트레스 4문항, 학교환경 스트레스 4 문항, 취업불안 스트레스 3문항,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Kang[27]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는 .87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1이었다.

### 2.4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2018년 6월 1일에서 8월 29일까지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 연구방법을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자발적인 참여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진행되었다. 총 177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2부를 제외한 후 175부를 최종분석에 이용 하였다.

###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 대상자의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자료 수집을 진행하기 전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설문지 작성 소요 시간, 개인의 익명성 보장, 연구 참여 중 철회 가능하고, 참여 철회 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 후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연구 참여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설문지 작성이 끝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였다.

### 2.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3을 사용하였고,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자아탄력성, 진로

결정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 수준은 평균과 표준 편차로 분석하였다.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 3) 자아탄력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 사이의 관련성은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 4) 취업스트레스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평균 연령은 21.75세로, 성별은 여성이 150명(85.7%)이었고, 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7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SD
Age (yr)		21.75±1.38
Gender	Female	150(85.7)
	Male	25(14.3)
Grade	3	84(48.0)
	4	91(52.0)
Place of residence	Rented room	102(58.3)
	Home	51(29.1)
	Dormitory	22(12.6)
Health status	Good	101(57.7)
	Common	67(38.3)
	Bad	7(4.0)
Entrance motive	High employment rate	60(34.3)
	Appropriate aptitude	43(24.6)
	Recommendation by parent and teacher	43(24.6)
	Good image and experience on nurse	14(8.0)
	High school record	9(5.1)
Satisfaction on university life	Have a service job	5(2.9)
	Many opportunities to go abroad	1(0.5)
	Very satisfactory	24(13.7)
	A bit satisfactory	65(37.1)
Satisfaction on major	Common	59(33.7)
	A bit unsatisfactory	23(13.2)
	Very unsatisfactory	4(2.3)
	Very satisfactory	39(22.3)
	A bit satisfactory	60(34.3)
Perceptive academic achievements	Common	55(31.4)
	A bit unsatisfactory	17(9.7)
	Very unsatisfactory	4(2.3)
	Fine	35(20.0)
	Medium	98(56.0)
	Poor	42(24.0)

학년이 91명(52.0%)이었다. 대상자 중 102명(58.3%)이 '자취'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01명(57.7%)이 자신의 건강상태가 '양호한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입학 동기는 '높은 취업률'이 60명(34.3%)으로 가장 많았다.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조금 만족한다'가 65명(37.1%),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조금 만족한다'가 60명(34.3%)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적은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98명(56.0%)으로 확인되었다.

#### 3.2 자아탄력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 취업스트레스 수준

연구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 수준은 Table 2와 같다. 자아탄력성은 4점 만점 중 평균 2.80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59점, 취업스트레스는 5점 만점 중 평균 2.10점으로 나타났다.

####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는 Table 2와 같다. 자아탄력성은 대학생활 만족도( $t=-2.426, p<.05$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건강상태( $t=2.817, p<.01$ ), 대학생활 만족도( $t=-3.697, p<.001$ ), 전공에 대한 만족도( $t=-4.124, p<.001$ ), 학업성적( $t=3.889, p<.001$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취업스트레스는 학년( $t=-3.290, p<.01$ ), 대학생활 만족도( $t=3.030, p<.01$ ), 전공에 대한 만족도( $t=3.080, p<.01$ ), 학업성적( $t=-2.132, p<.05$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3.4 자아탄력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자아탄력성( $r=.356, p<.001$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취업스트레스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r=-.215, p<.01$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2. Ego Resili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b-Seeking Str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75)

Variables	Categories	Ego resili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b-seeking stress	
		Mean ± SD	t or F(p)	Mean ± SD	t or F(p)	Mean ± SD	t or F(p)
Gender	Female	2.78±0.37	1.855	3.58±0.50	1.068	2.12±0.62	-0.941
	Male	2.93±0.36	(.073)	3.68±0.42	(.293)	1.99±0.68	(.354)
Grade	3	2.78±0.39	-0.685	3.57±0.52	-0.605	1.94±0.67	-3.290**
	4	2.82±0.35	(.494)	3.62±0.47	(.546)	2.25±0.54	(.001)
Place of residence	Rented room	2.83±0.37		3.62±0.49		2.08±0.65	
	Home	2.80±0.33	1.141	3.52±0.43	0.724	2.14±0.64	0.116
	Dormitory	2.69±0.43	(.322)	3.62±0.63	(.486)	2.11±0.51	(.890)
Health status	Good	2.84±0.34	1.389	3.68±0.46	2.817**	2.04±0.64	-1.583
	Below average	2.76±0.40	(.167)	3.47±0.51	(.006)	2.19±0.60	(.115)
Satisfaction on university life	Satisfactory	2.87±0.32	-2.426*	3.73±0.42	-3.697***	1.96±0.62	3.030**
	Below average	2.74±0.41	(.016)	3.46±0.52	(<.001)	2.24±0.61	(.003)
Satisfaction on major	Satisfactory	2.84±0.36	-1.661	3.73±0.43	-4.124***	1.98±0.61	3.080**
	Below average	2.75±0.38	(.099)	3.42±0.52	(<.001)	2.27±0.62	(.002)
Perceptive academic achievements	Fine	2.84±0.36	0.606	3.85±0.43	3.889***	1.90±0.62	-2.132*
	Below medium	2.79±0.37	(.547)	3.53±0.49	(<.001)	2.15±0.62	(.038)
Total		2.80±0.37		3.59±0.49		2.10±0.63	

\*  $p < .05$ , \*\*  $p < .01$ , \*\*\*  $p < .001$ 

Table 3. Correlation among Ego Resili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b-Seeking Stress (N=175)

Variables	Ego resili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b-seeking stress
Ego resilience	1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356(<.001)***	1	
Job-seeking stress	-.070(.356)	-.215(.004)**	1

\*  $p < .05$ , \*\*  $p < .01$ , \*\*\*  $p < .00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on Job-Seeking Stress (N=175)

Variables	B	$\beta$	S. E	t	$p$
Grade <sup>†</sup> (1=Grade 4) <sup>†</sup>	.303	.243	.089	3.399	.001**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232	-.182	.094	-2.462	.015*
Satisfaction on university life <sup>†</sup> (1=Satisfactory) <sup>†</sup>	-.203	-.162	.093	-2.190	.030*
Constant = 2.883		F(p) = 8.859(<.001)	R <sup>2</sup> = .135		

<sup>†</sup> Dummy variable\*  $p < .05$ , \*\*  $p < .01$ , \*\*\*  $p < .001$

### 3.5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취업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던 학년,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에 대한 만족도, 학업성적 4개의 변수, 취업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투입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학년,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에 대한 만족도, 학업성적은 명목척도이므로 가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 간 공차한계(Tolerance Limit)는 .922~.993으로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는 1.007~1.085로 10이하를 나타내고 있어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잔차의 독립성 검증에서 표준화 잔차가  $-2.015 \sim 3.253$ 이며, Durbin-Watson 값은 1.694로 2에 가까운 결과를 나타내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구체적인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년( $\beta=.243, p<.01$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beta=-.182, p<.05$ ), 대학생활 만족도( $\beta=-.162, p<.05$ )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수는 13.5%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8.859, p<.001$ ). 그러므로, 학년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고학년의 자아탄력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를 확인하고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 고학년의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긍정요인 강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은 4점 만점에 평균 2.80점으로 나타났으며, 4년제 대학과 전문대 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2.87점[28]이었던 것보다는 낮았고, 간호대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2.72점[12]이었던 것보다는 높은 결과였다. 자아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보다 유능하고 안정적인 경향이 있다[23]고 하였으므로, 임상현장에서 환자 및 보호자, 의료인 등 다양한 대상과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 간호대학생을 위

해 자아탄력성 강화교육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59점으로, 유아교육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76점[29]이었던 것보다는 낮았고, 비서학 전공생 1, 2학년 대상의 연구에서 3.35점[18]으로 나타났던 결과보다는 높았다. 이처럼 대체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취업에 가까워져 진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상승되고, 이에 따라 전공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면서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

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2.10점으로 나타났는데, 비서학 전공생 1, 2학년 대상의 연구에서 2.57점[18], 전문대학생 대상에서 2.44점[19], 1~4학년 대학생 대상에서 2.13점[21]이었던 것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전공학생에 비해 간호대학생의 졸업 취업률이 높기 때문에[5] 상대적으로 취업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 영향이라고 판단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은 대학생활 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30]와 일치하는 연구결과였다. 본 연구결과와 같이 대학생활이 만족스러울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아지는 것은 개인의 대학생활 만족이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스스로 유연하게 반응하는 경향인 자아탄력성이 강화된 결과라 생각된다.

대상자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일반적 특성 중 건강상태,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에 대한 만족도, 학업성적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대학생활과 전공에 만족할수록,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2~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31]에서 성적이 상위권인 경우 중·하위권인 대상자들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았다는 보고와는 일치하나, 학년에 따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었던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한편, 2~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32]에서는 건강상태, 학업성취도에 따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학년에 따른 차이는 없으므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와 같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했고, 같은 도구를 사용했다는 공통점

이 있는 연구이지만, 대상이 되는 학년이나 자료 수집을 진행하는 시기 즉, 2학기 초[32] 또는 2학기 중반[31]인지가 연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는 학년, 대학생 만족도, 전공에 대한 만족도, 학업성적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학년이 높을수록, 대학생활과 전공에 대한 만족감이 낮을수록,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항공운항과 여학생 중 2학년이 1학년보다 취업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16], 학업 성취도가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었으며[32], 4학년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학업성적,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7]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선행연구[21]에서 학교와 전공만족도가 '상'인 대학생의 경우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취업불안의 매개효과가 나타났으므로, 개인의 대학생활 및 학교 만족도에 따라 취업불안과 취업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 및 진로 지도가 수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자아탄력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대학생 대상의 선행연구[15]에서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자아탄력성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부분 매개하여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15]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효율적인 취업 및 진로지도를 수행함에 있어서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취업스트레스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스트레스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고[32], 대학 고학년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취업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33],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경우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취업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어[8]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보건계열 여대생의 경우 자아존중감, 주관적행복감과 같은 긍정정서가 취업불안스트레스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고 보고한 바[34], 이를 종합해 볼 때, 간호대학생 고학년의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비롯한 다양

한 긍정적 정서 및 인지요인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취업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2~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취업스트레스가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고[32], 4년제 대학교와 전문대학 졸업반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과 밀접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는 선행연구[35]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취업스트레스는 학년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간호·보건계열 학생 대상의 취업스트레스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수준이 보건계열 대학생에 비해 높았던 것으로 확인된 바[6], 이는 연구대상자의 학년이나 학제 및 전공계열 등의 차이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를 통해 취업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의 명확한 관계성을 규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대학생활 만족도의 순으로 확인되었고, 이 요인들은 취업스트레스를 13.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간호대학생 고학년의 학년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그리고 대학생활 만족도가 낮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 고학년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학년이 가장 큰 영향 변수로 파악된 것은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학년에 따른 단계적 취업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정규적인 비교과 과정으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강화하기 위한 대학차원의 방안이 요구된다. 실제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뇌파를 이용해 뇌가 최적화된 상태로 변하게 하여 자신과 타인에게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두뇌 훈련 내용으로 구성된 뉴로리더십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36], 간호대학생 3학년에게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유의하게 향상되고, 취업스트레스는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으며[37], 간호대학생

4학년에게 진로코칭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실험군이 대조군과 비교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증가하였고, 취업스트레스가 낮아지는 효과를 나타내[38] 간호대학생 고학년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증진과 취업스트레스 감소를 모두 조절할 수 있는 융복합적인 취업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간호대학생 고학년의 취업스트레스 영향요인으로 규명되었고,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스트레스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라 취업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학교생활을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하였으므로[7], 대학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 및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교수-학생 간담회와 같은 대학 및 간호학과와 간호대학생들 사이의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대학생활 시 불만족스러운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기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취업스트레스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학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대학생활 만족도가 간호대학생 고학년의 취업스트레스를 13.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설명력이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추후 간호대학생 고학년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규명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일 개 대학 간호대학생 고학년을 편의표집하여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 및 적용하는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고학년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를 파악하고,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요인은 학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대학생활 만족도로 규명되었고, 이들 변수는 13.5%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취업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의 상관관계 유의성이

연구에 따라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그 관련성과 방향성을 파악하는 반복적인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간호대학생 고학년의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년, 대학생활 만족도를 고려한 단계적이면서, 융복합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을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 고학년의 취업스트레스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학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대학생활 만족도의 설명력이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다양한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추후 연구 수행을 제언한다.

## REFERENCES

- [1] T. I. Kim, H. S. Kim, Y. H. Shin, M. K. Shim & W. O. Oh. (2016). *Growth Development and Health*. 3rd ed. Paju : Gyomoon Press.
- [2] H. J. Yi & H. K. Kim. (2015). The Effect of Intoxication in SNS and Stress of University Life on the Adaption of University Life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6), 3944-3953.  
DOI : 10.5762/KAIS.2015.16.6.3944
- [3] National Korean Language Institute. *Standard Korean Dictionary*.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 [4] Korean Nurses Association.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News*.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61&idx=23696>
- [5] Ministry of Education. (2018). *Employment Statistics for Graduates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2017*.
- [6] H. Jeon & M. Lee. (2016). Influence of Self-Esteem and Appearance Satisfaction on Job-Seeking Stress in Nursing and Health Care Related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2), 643-651.  
DOI : 10.5762/KAIS.2016.17.12.643
- [7] H. S. Song & S. H. Lim. (2017). Influence of Major Satisfaction and Job-Seeking Stres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Senior Nursing Stud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14), 21-36.  
DOI : 10.22251/jlcci.2017.17.14.21
- [8] E. Ahn. (2018). The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 Value and Career Decision Self Efficacy on Senior



- Nursing Students' Job Seeking Stress-Perspectives of Convergen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6), 365-372.  
DOI: 10.15207/JKCS.2018.9.6.365
- [9] M. J. Park, J. H. Kim & M. S. Jung. (2009). A Qualitative Study on the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for Preparing Employment.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0(1), 417-435.
- [10] M. O. Kim & Y. S. Park.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Preparing Behavior and Jobs Seeking Stress in University students: Moder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11), 69-90.
- [11] H. N. Lee, H. J. Jeong, K. H. Lee & H. J. Lee. (2006). The Relationship among Stress Perception, Stress Coping, Ego-resilience and Happiness of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7(3), 701-713.
- [12] J. A. Park & E. K. Lee. (2011).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tress Coping Styles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7(3), 267-276.
- [13] N. N. Cole et al.. (2015). Predictor and Moderator Effects of Ego Resilience and Mindful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 Sample of Ghanai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Black Psychology*, 41(4), 340-357.  
DOI : 10.1177/0095798414537939
- [14] K. M. Taylor & N. E. Betz.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DOI : 10.1016/0001-8791(83)90006-4
- [15] M. K. Shin & H. S. Kim. (2017).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ission Sens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Ego-Resilience as a Mediator.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30(4), 131-148.
- [16] S. K. Hyun. (2016). The Effect of Jobs Seeking Stress on Physical Symptoms and Health Perception of College Female Students Flight Operation. *The Korean Journal of Sport*, 14(4), 395-404.
- [17] W. S. Yun. (2016). The Impact of College Students' Job-Seeking Stress o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Based on Agnew's General Strain Theory.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13(1), 95-118.
- [18] J. A. Kim. (2014).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b Preparation Behavior, and Stress Coping On Job-Seeking Stress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ecretarial Studies. *Journal of Secretarial Studies*, 23(1), 141-164.
- [19] E. J. Chang & S. J. Lee. (2016). Effects of the College Student's Self-Leadership on Self-Efficacy and Job-Seeking Stress. *The Journal of Training and Development*, 33, 75-102.
- [20] J. U. Kim & S. Y. Park. (2018).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Resilience and Depression between Job-seeking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5), 561-582.  
DOI : 10.22251/jlcci.2018.18.5.561
- [21] Y. J. So & J. S. Park. (2016).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Job-Seeking Stress on Career Maturity in University Adjustment: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Job-Seeking Anxiety.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6(4), 23-44.
- [22] F. Faul, E. Erdfelder, A. G. Lang & A. Buchner. (2007).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 175-191.  
DOI : <http://dx.doi.org/10.3758/BF03193146>
- [23] J. Block & A. M. Kremen.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DOI : 10.1037/0022-3514.70.2.349
- [24] S. K. Yoo & H. W. Shim (2002).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s in Resilient Adolescents in Korea. *Journal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16(4), 189-206.
- [25] K. H. Lee & H. J. Lee. (2000). The Effects of Career Self Efficacy in Predicting the Level of Career Attitude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2(1), 127-136.
- [26] S. W. Hwang. (1998). *A Study on Employment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 [27] Y. R. Kang. (2006). *The Influence of Job seeking Stress on Their Career Maturity Dance Major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 thesis. Dankook University, Gyeonggi-do.
- [28] E. Park & E. Lee. (2013). The Effects of Undergraduates'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and Ego-Resilience on Jobs Seeking Stress. *Studies on Korean Youth*, 24(4), 5-30.
- [29] Y. H. Jung & J. H. Yang. (2013). The Effect of Major

-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Employment Stress of the Pre-service Teachers who Majored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0(3), 229-248.
- [30] M. O. Chae. (2016). Ego resilience, Empathic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5), 95-103.  
DOI : 10.5762/KAIS.2016.17.5.95
- [31] S. M. Ahn & K. Kim. (2018). The Influence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Problem Solving Ability and Job-seeking Stress on Nursing Students' Career Maturi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1), 555-565  
DOI : 10.5762/KAIS.2018.19.1.555
- [32] S. A. Yang. (2017). Convergence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Job-Seeking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4), 171-183.  
DOI : 10.22156/CS4SMB.2017.7.4.171
- [33] Y. H. Ko & Y. H. Park. (2018).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on the Senior Students' Employment Stres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1), 73-83.  
DOI : 10.14400/JDC.2018.16.1.073
- [34] S. Y. Bae & S. H. Kim. (2016). Analysis of Convergent Influence of Positive Emotion, Negative Emotion and Job Seeking Stress on Depression among College Women of Health Affiliated Education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3), 269-278  
DOI : 10.14400/JDC.2016.14.3.269
- [35] K. S. Han & K. H. Suh. (2015). Relationships between Job-seeking Stress and Subjective Well-Being: Focus on the Role of Resilienc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 235-251.
- [36] S. J. Kim. (2018). The Effect of Neurofeedback Training-utilized Neuroleadership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 Brain Quotient, Job Stres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5(4), 1-27.
- [37] Y. H. Kim. (2013). Effect of Career Empowerment Program on Career Maturit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Employment Str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12), 817-828.  
DOI : 10.5392/JKCA.2013.13.12.817
- [38] Y. S. Seo & C. Y. Jeong. (2016). Effect of Career Coaching Program for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Self-leadership, and Employment-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2), 138-145.

DOI : 10.5762/KAIS.2016.17.12.138

채 명 옥(Chae, Myung Ock)

[정회원]



- 1997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0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3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청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아동의 안전, 성장발달, 시뮬레이션교육
- E-Mail : 7702cmo@cju.ac.kr